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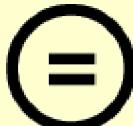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청구논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정 창 훈

2012년 8월

#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정 창 훈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정창훈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8월

<국문초록>

##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정 창 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중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중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선정, 사전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자료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서귀포시에 소재한 J중학교 2학년 학생 14명이며 이들을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Osipow(1976) 등에 의해 개발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고향자(1992)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절한 문장표

---

\* 본 논문은 201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현으로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Taylor 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CDMSE-SF) 척도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척도를 타당화한 것을 다시 이은경(2001)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문과 대조하여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 혹은 대치하여 타당화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노동부(2001)가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 단계에 있는 15~2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개발한 청년층직업프로그램을 2007년 개정연구를 통해 중학생용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재구성 하였다. 프로그램은 매주 1회, 1시간씩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SPSS WIN 18.0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사전검사 평균 점수 차를 계산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t값과 p값을 산출하여 효과를 검증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사후-사전 점수 차가 진로결정 수준에서 통제집단 보다 증가 되어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사후-사전 평균 점수 차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서 통제집단 보다 증가되어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함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사후-사전 진로결정 효능감 평균 차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모든 영역에서 증가 되어 하위 요인들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올바른 자기 자신의 이해, 다양한 직업세계의 탐색 및 직업정보를 습득하고, 학과와 진로관련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진로탐색, 진로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

려하여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돋기 위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3
3. 용어의 정의 .....	4
4. 연구의 범위 .....	5
II. 이론적 배경 .....	7
1. 중학생의 진로발달 .....	7
2.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개념 .....	10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개념과 요소 .....	15
4.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	17
5.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	19
III. 연구방법 .....	24
1. 연구대상 .....	24
2. 연구설계 .....	24
3. 연구도구 .....	25
4. 연구절차 .....	29
5. 자료처리 .....	30
IV. 연구결과 및 해석 .....	32
1. 연구 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	32
2. 가설검증 .....	34
3. 질적 분석 .....	40
V. 요약, 결론 및 제언 .....	45
1. 요약 .....	45

2. 결론 .....	47
3. 제언 .....	48
 참고문헌 .....	50
 <b>Abstract .....</b>	<b>55</b>
 부 록 1 .....	58
부 록 2 .....	59
부 록 3 .....	61

## 표 목 차

<표Ⅱ-1> Super의 진로 발달 단계 .....	9
<표Ⅲ-1> 연구대상 .....	24
<표Ⅲ-2>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내용 .....	25
<표Ⅲ-3> 진로결정수준의 척도 문항구성 .....	27
<표Ⅲ-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	28
<표Ⅲ-5> 연구의 진행절차 .....	30
<표Ⅳ-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결정수준 사전 차이 검증 .....	32
<표Ⅳ-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전 차이 검증 .....	33
<표Ⅳ-3>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실험, 통제집단 결과 효과 검증 .....	34
<표Ⅳ-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실험, 통제집단 결과 효과 검증 .....	35
<표Ⅳ-5> 목표선택에 대한 실험-통제집단 사후-사전 결과 효과 검증 .....	36
<표Ⅳ-6> 직업정보에 대한 실험-통제집단 사후-사전 결과 효과 검증 .....	37
<표Ⅳ-7> 문제해결에 대한 실험, 통제집단 사후-사전 결과 효과 검증 .....	38
<표Ⅳ-8> 미래계획에 대한 실험, 통제집단 사후-사전 결과 효과 검증 .....	39
<표Ⅳ-9> 회기별 소감문 및 관찰에 의한 분석 .....	40

## 그 림 목 차

[그림 II-1] 연구 설계	25
[그림 IV-1] 실험, 통제집단 진로결정수준 평균 비교	33
[그림 IV-2] 실험, 통제집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후-사전 차이 비교	34
[그림 IV-3] 실험, 통제집단 목표설정 사후-사전 차이 비교	35
[그림 IV-4] 실험, 통제집단 직업정보 사후-사전 차이 비교	36
[그림 IV-5] 실험, 통제집단 문제해결 사후-사전 차이 비교	37
[그림 IV-6] 실험, 통제집단 미래계획 사후-사전 차이 비교	38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느 때 보다도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직업의 구조가 전문화, 세분화됨에 따라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요구하게 되어 진로선택이 어려워지고, 개인의 가치가 다양해짐으로써 삶의 형태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탐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각자의 능력 발휘, 기회, 인간관계, 개인의 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관계, 거주지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되며 개인의 생활양식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생애에 매우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일상의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진학이나 직업선택과 같이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을 발견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직업군을 찾을 수 있도록 탐색하고 지도하는 일은 오늘날 학교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Herr와 Cramer(1996)는 올바른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 발달 단계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진로인식, 중학교 단계에서는 진로탐색,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준비, 대학교 단계에서는 진로 전 문화의 발달에 주력하는 시기라 구분하였다. 그는 또한 각 발달 수준에 따라 직업에 대한 이해, 탐색, 준비, 전문화 과정을 거쳐 생산적인 직업인으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기로 미래의 자기 직업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김충기(2000)는 진로교육에서 중학교 시기는 진로탐색 단계로서 일과 직업의

세계를 탐색함과 동시에 자아특성에 대한 탐색을 함으로서 자기특성에 맞는 직업과 관련지어 자기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시기에 해당한다. 자신의 능력, 적성에 대한 이해, 산업 및 직업 분류, 현대 사회와 직업의 관계, 직업 생활을 준비로서의 교육, 장례의 잠정적인 직업계획 수립, 진학 및 직업 준비, 직업의 의미와 필요성, 바람직한 직업 선정의 조건 등을 이해하고 탐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진로탐색 시기에 있는 중학생은 개인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직업 및 준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진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교육을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진로발달 단계에 적합한 지도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개인이 보다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체적 활동’으로 본다면 진로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2002).

하지만 현재 중학생은 자신의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선택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조건조차 제대로 아는 학생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2001). 이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에 알맞은 진로를 고려하지 않고 대학 진학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어 왔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김재담(2003)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직업에 대한 탐색 없이 학업 성적 위주로, 또는 가정형편이나 부모의 의견에 따라 진학하거나 취업을 결정하고 있다. 또 어떤 부모들은 고학력이 고소득이라는 고정 관념 속에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직업에 대한 탐색 없이 오직 좋은 대학, 인기 학과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나 전공에 적응하지 못하여 갈등 속에 재수나 전과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 개발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습관을 함양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결정을 위하여 정보를 탐색하며, 계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진로의식을 성숙시키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로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진로목표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진로에 탐색을 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래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감정에 이끌려 진로에 관한 정보탐색이나 대안 평가 없이 직관적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의사 결정에서 자신이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교사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책임을 쉽게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진로결정에 수동적인 면이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중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신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유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중학생들에게 자신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한 직업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중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교사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진로탐색프로그램은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진로탐색프로그램은 여중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진로탐색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목표선택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직업정보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문제해결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미래계획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로지도를 개인의 직업적 발달을 촉진시켜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직업세계를 탐색, 지각하여 진로의 인식, 탐색, 경험, 준비를 통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된 직업에 잘 적응하며, 일생동안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이현림, 2011).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전문 상담자나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돋고,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과 변화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합리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도록 돋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 2) 진로결정수준

고향자(1992)는 진로결정수준을 학생들이 진로선택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 곧 역으로 진로미결정수준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김봉환은(1997)은 ‘진로 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 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수준의 정의를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Brown et al, 1995; 조용선, 2005 ).

최근 진로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직업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개인의 진로탐색, 능력이나 선택에 대한 평가, 관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등 진로탐색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봉환, 1997).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가치와 흥미를 탐색하고, 관심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지,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즉 구체적인 자신감을 말한다.

##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수행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귀포시 소재 J중학교 2학년 여학생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으로 제한한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 처치 과정에서 가외변인인 연구자와 참가자의 기대, 연구자의 지도유형, 참가자의 성적, 가정과 사회 그리고 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진로발달 이론, 진로의사결정이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론, 진로탐색 프로그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중학생의 진로발달

진로발달은 인간 발달의 주요한 측면으로 진로행위가 한 개인의 생애동안 어떻게 발달하고 변화하는가에 주안점을 두는 이론으로 개인의 자아상, 가족의 삶, 환경과 문화적 조건들의 모든 측면들과 연결되어진다. 발달이론 가운데 대표적인 Ginzberg(1995), Super(1957) 그리고 Tuckman(1974)의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Ginzberg의 진로발달 이론

Ginzberg(1995)의 이론은 직업선택 과정에 발달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직업 선택이 일회적인 행위, 즉 단일결정이 아니라 장기간의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결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 짓고 있다.

##### (1) 환상적 직업선택 단계(6-10세)

이 단계는 대개 6세에서 10세까지로 현실 여건이나 자신의 능력, 흥미, 가능성 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진로선택으로 동일시하는 시기로 독단적이고 자기도취적이다.

이 시기는 아동들을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환상 속에 현실적인 장애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 (2) 잠정적 직업선택 단계(11-17세)

이 단계는 직업 선택에 자신의 흥미와 능력, 가치관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요인이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잠정적이라 할 수 있다. 잠정기는 다시 흥미 단계(11-12세), 능력 단계(13-14세), 가치 단계(15-16세), 전환 단계(17-18)의 네 가지의 하위 단계로 구분된다.

### (3) 현실적 직업선택 단계(18-22세)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직업의 요구조건, 교육기회, 개인적 요인 등의 현실요인을 고려하고 타협하여 결정하는 시기로 비로소 현실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 2) Super의 진로발달 이론

Super의 발달이론은 Ginzberg 이론의 미흡성 비판에서 출발된 이론으로서 직업선택 및 직업발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분석, 종합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발전된 이론으로 정립하였다. Super는 진로발달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개인의 능력, 인성, 흥미 등의 차이에 따라 적합한 직업 환경이 있다고 보았다.

Super의 진로 발달 이론의 핵심은 진로 의식의 발달 과정이 바로 개인의 자아 개념의 발달과 그것의 실현이라고 보는 데 있다. 이러한 발달 과정은 개인의 변인과 사회적 요인간의 타협과 종합의 연속으로써, 자아개념은 타고난 능력, 신체적 특징, 다양한 역할 수행의 기회, 결과에 대한 주위의 반응 등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Super는 1951년에 수행한 ‘진로유형연구’를 통해 그의 중요한 이론적 개념 중의 하나인 진로발달단계를 다음과 같이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과정으로 <표 II-1>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II-1> Super의 진로 발달 단계

발달단계	연령	주요과업
성장기	0-1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환상기(4-1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 감수, 욕구 충족을 강조함</li> </ul> </li> <li>b. 흥미기(11-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것과 싫은 것을 탐색함</li> </ul> </li> <li>c. 능력기(13-1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력과 직무요건을 대충 결정함</li> </ul> </li> </ul>
탐색기	14-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잠정기(15-1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구 흥미, 능력, 가치와 작업적인 기회를 고려함</li> </ul> </li> <li>b. 전환기(18-2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혹은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현실적인 요인을 중시</li> </ul> </li> <li>c. 시도기(22-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선택, 적합성 여부를 시험</li> </ul> </li> </ul>
학습기	25-4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시행기(25-3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하지 않을 경우 두 차례의 변화를 가짐</li> </ul> </li> <li>b. 안정기(31-4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형태를 안정시킴</li> <li>: 직업의 세계에서 안정한 위치를 찾음</li> </ul> </li> </ul>
유지기	45-64세	직업 세계에서 위치를 유지함
쇠퇴기	65세 이후	직업에서 은퇴, 새로운 역할, 활동 탐색

### 3) Tuckman의 진로발달 이론

Tuckman(1974)은 자아 인식, 진로 인식 및 진로 의사 결정이라는 주요 요소를 포함하는 8가지 단계의 진로 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1단계(일방적 의존성의 단계) : 대략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과정으로 이 단계에서의 진로발달은 외적 통제에 의존한다.

둘째, 2단계(자기주장의 단계) : 대략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으로 아동은 조금씩 자율성을 갖게 되며 친구의 선택과 같은 간단한 형태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3단계(조건적 의존성의 단계) :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시기로 이 단계에서 아동은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보다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

넷째, 4단계(독립성의 단계) : 대략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되는 시기로 이 단계에서 아동은 일의 세계를 이론적으로 탐색한다.

다섯째, 5단계(외부의 지원의 단계) : 초등학교 5-6학년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단계에서 아동은 외부의 승인이나 인정을 구하게 된다.

여섯째, 6단계(자기 결정의 단계) : 대략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시기로 개인은 자신의 규칙과 규범을 설정하고 자아 인식을 위해 노력하며 직업군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일곱째, 7단계(상호관계의 단계) :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시기로 또래 문화와 교우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로 선택을 하게 된다.

여덟째, 8단계(자율성의 단계) : 고등학교 2-3학년에 해당되는 시기로 개인은 직업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자기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단계를 고려해 볼 때 중학생의 시기는 자아개념이나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흥미나 능력 이외에 가치관, 생애목표, 진로, 같은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실제적인 진로선택이 가능해 짐에 따라 객관적인 자기이해를 전제로 한 진로지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 2. 진로의사결정수준의 개념과 구성

1960년대를 거치면서 심리학적 의사 결정 이론에 입각한 진로의사결정 이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이론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분석 및 설명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Dilley, 1974).

인간은 작은 일에서부터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진로 의사결정은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진로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선택들이 행해지는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진로의사결정은 진로와 관련된 이론의 구성 요소로서 특히 의사결정 이론의 개념과 과정을 포괄적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진로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한 진로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Tolbert, 1980).

의사결정 이론은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하려는 방향

으로 행한다는 Keins의 경제 이론에 근거한 이론으로,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의사 결정 이론의 개념과 과정을 포괄적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진로의사 결정을 통한 진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Harren(1979)이 Tiedman과 O'Hara의 진로의사 결정모형을 토대로 진로의사결정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 이론으로 Gelatt(1962), Katz(1963), Tidman과 O'Hara(1963), 그리고 Harren(1979)의 이론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Gelatt의 이론

Gelatt(1962)는 진로상담의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돋는 것이고, 훌륭한 진로결정은 결과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직업선택과 발달의 과정을 의사결정의 순환과정으로 본 것으로 상담을 위해 구안된 것이다. 그의 의사결정과정은 여덟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는 목적의식을 수립하는 단계로 진로의사결정의 목표나 목적을 결정한다.

둘째는 여러 가지 관련정보, 예를 들면 적성검사, 전년도 성적표, 흥미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단계이다.

셋째는 결과를 예측하고 장단점을 기록하며, 넷째는 각 대안의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단계이다. 다섯째는 가치평가를 단계로 성공할 확률이 높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 중 자기의 가치관을 맞는 것을 보고, 여섯째는 평가 및 재투입단계로 실천에 옮기지 못할 경우나 결과에 좋지 않을 경우 결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의 순서대로 다시 질문해 보는 단계이다 (Tolbert, 1980).

### 2) Katz의 이론

Katz(1963)는 가치결정에 근거를 둔 진로의사결정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목적을 결정하는 업적, 관계성, 명성, 수입, 여가시간 등과 같은 성격의 기본적인 성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안들은 가치를 점검하여 개개

인의 가치 실현을 극대화시켜 주는 직업을 식별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진로지도 체제인 ‘상호작용 진로지도 정보의 체계’가 이러한 제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상호작용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내담자가 일련의 단계들을 거쳐 적합한 진로의 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 이때의 가치체계 과정은 다른 사람들이 지난 가치와 비교하여 각 개인이 추정한 각각의 가치가 지난 장점들을 수용함으로써 시작된다. 그 후에 각 개인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진로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또한 각 가치의 최소한의 출발점을 판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을 검증해 본다.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이 지난 가치를 조화시키는 가치의 크기를 다중화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각 직업에 대한 가치가 반환된다. 각 직업에 대한 반환가치가 효율적일수록 개개인은 더 적합한 직업을 얻게 되며, 마침내 진로의사결정을 획득하는 능력에 있어서 개인의 신념은 각각의 대안들에 대해 ‘기대된 가치’를 부여하게 되며 기대된 가치가 높을수록 더욱더 적절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현림, 2001).

### 3) Tiedeman과 O'Hara의 이론

Tiedeman과 O'Hara(1963)는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분화와 통합 과정을 개념 하여 예상기와 이행기로 나누고 이를 다시 일곱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예상기

전 직업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상기는 네 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탐색 단계로 개인은 그 동안 자아와 직업세계의 지식에 대한 이해와 행동을 계획 없이 실시해 왔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선택사항이 뚜렷하게 발달하지 않았거나, 현재 상태에 불만족을 느낌으로서 현재의 진로상태에서 분화되어 가능한 다른 목표를 찾는다.

둘째, 구체화 단계로 개인은 가능한 대안에 대한 선택을 하게 이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갈등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 개인은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

교, 검토하여 서열화하고 조직화 한다.

셋째, 선택 단계로서 개인은 특별한 목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갖고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확신정도는 생애의 선택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 개인은 자신의 개성이나 용모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넷째, 명료화 단계로서 개인은 사고의 과정과 자기 이미지의 완성,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 과정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과정들은 선택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은 될 수 있어도 적극적인 실행조건으로부터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예상기의 네 단계는 문제는 한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대안들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2) 이행기

이행기는 계획이 실천에 옮겨지고 잠정적인 결정을 시도해 보는 단계로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적응 단계로서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며, 개인의 목표와 포부는 집단의 목표에 동화되고 수정된다.

둘째, 개혁 단계로 수동적인 수용의 성격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의 변화로 나타난다.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을 발달시키고, 집단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와 부합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려고 한다.

셋째, 통합 단계는 개인이 집단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가 유사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일어난다. 즉, 타협과 통합과정을 이루면서 개인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완만하게 생활해 가면서 개인은 직업정체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문화와 통합의 과정을 통한 평형화 과정이다.

이 이론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체계나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이고 직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이현림,2001).

## 4) Harren의 이론

Harren(1979)은 Tiedeman(1961)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진로의사결정을 정립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변인들을 고려한 광범위한 모형을 발달시켰다.

Harren의 모형은 의사결정과정만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특징, 개개인이 당면한

발달과업, 그리고 의사결정 상황과의 관계를 가정한 점에서 원래의 Tiedeman과 O'Hara의 확장시켰다.

#### (1) 인식단계

인식단계는 진로계획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상태이며 불만족의 원인을 확인할 때 더욱 현실적이고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대학의 압력, 진로를 결정하거나 바꾸는데 있어 부모의 압력,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데 대한 초조감, 생계에 대한 압박, 선택한 직업이 더 많은 학교 교육을 요구할 때 오는 압박감등을 들 수 있다.

#### (2) 계획단계

계획단계에서는 불만족의 근원을 이해하고 여러 대안을 수립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잘 알고 불만족에 적절히 대응한다.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업에 대해 잠정적인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 (3) 확신단계

확신단계에서는 자신이 계획했던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동기를 친구, 부모와 함께 의논해 보고 그들의 반응을 얻는다. 평판이 부정적이면 정보를 좀 더 수집하거나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고, 평판이 긍정적이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된다.

#### (4) 이행단계

이행단계에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단계로 동조단계와 자율성 단계 및 상호단계로 분류된다. 동조단계는 사회적 승인, 인정에 대한 높은 욕구를 경험하고, 자신의 욕구, 가치, 목표가 경시되거나 역압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이고, 자율단계는 자신의 요구, 가치관 및 목적이 주장되고 과대 포장되기도 한다. 상호의존단계는 다른 사람과 상호적 작용으로 변화한다.

이미 결정한 진로 분야에 적응하고, 그 결정에 따른 성공이나 만족감을 피드백하는 단계이며 개인의 성취 정도는 자아개념 체제의 발달 정도, 진로의사결정유

형, 진로발달 과업의 달성 정도 그리고 이를 간의 상호 관계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개념과 요소

Aviram와 Eden(1993)은 자기효능감이란 구체적인 과제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믿음을 이끌어내는 인지적 구조로 즉, 어떤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 하였으며, 행동과 행동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즉,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기능력에 대한 믿음이 과제시도의 여부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과제에 대해 끈기 있게 도전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기는 무력하지 않다는 자신에의 신뢰감은 자립적, 적극적 행동을 추구한다. 효능감은 일반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자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면 그것에 의해 다른 면도 동반상승하여 서서히 적극적이 된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인간생활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정의적 특성으로 개인의 행동야식, 성취동기, 목표의 계획 및 달성, 자아실현, 사회적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과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개인의 생활 지도 면에서 더 없이 중요하다(이은경, 2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와 Hackett(1981)가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자기효능감은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진로발달 모델에 포함되었으며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은 특별히 진로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 되었다. 특히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은 성공 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흥분의 네 가지 중요한 정보원을 갖는다고 하였다.

다. 성공 경험은 개인적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원이며, 대리적 경험은 유사한 타인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델링은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며 상황에 대한 예측성과 통제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언어적 설득은 궁극적인 피드백이 제공 될 때 효능감과 수행이 증진되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제공될 때 효능감과 수행이 감소된다. 언어적 설득에는 그러한 설득을 하는 상대방의 지식과 신뢰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각성은 개인의 생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안이나 공포 같은 상황에선 정서적 생리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 상담에서는 언어적 설득이나 생리적 피드백 정도만 활용되지만 구조화된 집단프로그램에서는 네 가지 자기 자기효능감을 주는 경험들이 포함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구조화된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인 자기이해와 체계적인 진로탐색을 돋는다면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척도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다섯 가지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연구결과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감이나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이나 진로탐색활동, 진로태도, 자존감, 여성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 성역할 자아개념과 의미 있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는 진로를 선택하거나 이에 따른 실제적인 준비행동을 할 때 자기효능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최근 진로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직업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개인의 가치탐색, 능력이나 선택에 대한 평가, 관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등 진로탐색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봉환, 199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가치와 흥미를 탐색

하고, 관심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지,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즉 구체적인 자신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4.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 1) 진로상담의 정의

진로상담을 Super(1957)는 일의 세계에 적절히 융화된 자신의 역할상과 자아상을 발전시키고 수용하여, 자신을 현실에서 검토해 보고 검토한 자체를 자신에게 만족하고 사회에 이익이 되게 전환하도록 개인을 돋는 과정이라 했으며, Herr와 Crammer(1979)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자가 다양한 기술을 구사함으로써 내담자가 자기 이해와 함께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주로 언어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진로상담은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현실 적용에 필요한 실천적 활동으로 학생들의 정의적 성숙과 진로발달을 도와주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진로발달을 위해 교과활동을 통한 진로교육과 함께 그들이 당면하는 진학과 직업선택에 관련시켜 다양한 진로정보의 제공, 자기이해,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학탐색의 과정, 진로 계획 및 진로의사결정을 돋는 데 역점을 둔다(장석민, 1996). 또한 김충기(2001)는 진로상담은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현실적응에 필요한 실천적 활동으로 학생들의 정의적 성숙과 진로발달을 도와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이렇게 여러 학자의 진로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진로상담은 개인이 자신의 성격, 적성, 흥미, 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 등을 포함한 자기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돋고 일의 세계를 포함한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어 개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진로에 관한 계획과 수립,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2) 집단 상담의 이해

집단 상담은 깊은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집단의

상호작용을 적용하는 과정이다(Herr , Crammer, 1984). 기본적으로 집단상담의 역할은 집단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통찰한 것을 집단외부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집단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것이다(Correy, 1995).

집단상담은 훈련받은 전문가인 상담자와 비교적 정상범위의 적용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태도를 수정함으로써, 전개된 문제를 보다 능률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문제를 탐색, 조사하며, 개인적인 발달에 초점을 둘 것으로써 개인발달을 돋는 사회적, 심리적인 기능이다(김미희, 2007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 집단상담은 학생들의 정의적 성숙과 진로발달을 도와주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으로 진로계획, 직업선택, 진로문제의 해결과 적응을 진로탐색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진로탐색 집단 상담이라 정의한다.

### 3)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로란 인간이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서, 대가를 받는 직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즉, 자신의 교육, 대인관계, 훈련, 직업, 결혼, 가정생활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삶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직업이며, 우리는 직업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와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이현림, 2001재인용).

진로탐색이란 일과 직업의 세계를 탐색함과 동시에 자아특성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자기특성에 맞는 직업과 관련지어 자기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말로써, 진로탐색 시에는 자신의 능력, 적성에 대한 이해, 산업 및 직업분류, 현대사회와 직업관계, 직업생활을 위한 준비로서의 교육, 장래의 직업계획 수립, 진학 및 직업 준비, 직업의 의미와 직업의 필요성, 바람직한 직업 선정 등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김미희, 2007).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도 학생의 인간적 성숙을 위하여 진로결정을 돋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되어야 한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진로교육의

가장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다.

김충기(1993)는 진로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아개념의 구체화,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계획에 대한 책임감, 의사결정능력, 협동적인 사회적 행동, 일에 대한 태도 등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진로탐색 집단상담 활동은 집 단원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정보를 탐색하고 진로계획을 세워봄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술을 습득하고 진로의식을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 5.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 1)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진로결정에 대한 관련 연구는 대부분 위에 언급한 변인 연구이거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한 진로지도, 혹은 진로상담 후 진로결정의 변화를 통해 진로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려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Smit(1981)는 매주 2시간씩 10주간 2학급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고도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것 보다 훨씬 진로결정수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증가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Johnson과 Yates(1981)는 중학교 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주 1시간씩 5주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CMI로 측정해 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수준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오미경(2006)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진로결정수준을 비교한 결과 진로지향성, 직업적 성 편견, 자율성, 자긍심 영역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방자(2001)는 진로상담이 중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양문혜(2002)는 담임교사가 실시하는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진로결정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에서 진로탐색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결정

에 효과가 있었으나 학생들의 학습동기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태성(1999)은 진로인식 프로그램을 적용한 아동이 적용하지 않는 아동보다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고, 또한 진로인식 프로그램은 자아를 인식하고 직업세계를 이해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형국(2007)은 진로상담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진로결정수준 검사를 실시하였고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종결 후 12주 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상담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이 진로결정수준 전체 득점이 사전에 비해 사후 점수가 높아졌고, 높아진 점수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12주가 지남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2005)은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상담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물론 개인의 심리적 성숙을 도모하고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환경을 인식,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생들이 개인의 진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장래의 진로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재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진로탐색 집단 상담과 진로의사결정유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수연(2002)의 연구에는 진로미결정 내담자를 위한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자아정체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내었다. 강옥희(2002)는 집단상담을 통한 진로탐색과 인터넷을 이용한 진로탐색이 중학교 여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결정에 효과적이며, 집단 상담을 통한 진로탐색에 부분적으로는 더 효과가 있음을 입증 하였다.

양미경(2001)은 진로집단 상담이 중학생의 진로의식 점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의사결정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오태희(2002)는 진로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서 진로

결정성, 진로독립성, 진로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직관적 유형과 의존적 유형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연(1996)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에게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결과 진로의사결정의 유형인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중에서 합리적 유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손양자(2004)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고대석(2004)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서 진로의사결정 유형 중 합리적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한편, 진로발달 단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해 단계로서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 탐색, 직업흥미 검사, 직업적성 검사실시, 진로성숙도, 직업성격 유형, 능력과 기술, 직업가치, 자신의 장점과 단점 탐색, 직업 세계의 이해 단계로서 진로 대안 선택과 진로의사결정의 실행과 평가로 구성되어 진로의사결정의 향상을 보고 하였으며(김성희 외, 1990), 김판환(1998)의 프로그램은 10년 후 나의 모습, 나의 흥미와 가치, 나의 적성과 기술, 나의 요구와 성격, 직업정보 수집하기, 직업적 사실 조사하기, 개인의 특성과 직업을 연결시키기, 최종적인 직업에 대한 결정 내리기 등으로 구성되어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변화에 긍정적 변화를 보고 하였으며, 고향자(1992)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의사결정 상담훈련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에서 합리적 유형의 증가와 의존적 유형의 감소를 보고하면서 진로집단상담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 2)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곽효길(2003)은 단기과정 진로탐색 활동이 진로 자기효능감의 태도, 능력 및 행동영역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나타났다.

김경애(2004)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며, 진로탐색에 흥미를 주어 앞으로의 직업선택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경숙(2003)은 자기 주도적 집단탐색 프로그램이 진로결정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태도영역의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의 하위검사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남재희(2009)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중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점수와 4가지 하위요인 목표선택, 직업정보, 미래계획, 문제해결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는 일정 기간(6주)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주현(2006)은 중학생에게 집단상담을 통한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집단상담을 통해 집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며, 집단내에서 자기노출, 공감, 지지 등이 진로와 직업에 대한 목표를 선택하고, 필요한 직업정보를 구하며,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았다.

정복연(2005)은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진로지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과정과 과목 선택을 위한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았다.

박정현(2005)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은 그렇지 않는 집단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향상됨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자기평가, 목표설정, 문제해결 영역에서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김해수(2002)는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집단 상담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권효숙(1998)은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집단적으로 적용하면서 9개의 영역을 총 9과정에 걸쳐 실시한 결과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은 적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진로의식 성숙의 하위영역인 계획성, 현실성, 태도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관성, 책임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진로의식 성숙의 전체적인 점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진로상담프로그램의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현정(2005)은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상담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외국의 경우 Smith 와 Evan(1973)과 Rubinton(1980)의 연구에서 진로의사 결

정 상담 후에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진로의사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고 보고 하였으며, Harren(1992)은 직관적 유형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 들이고 정서적 자각과 상상을 활용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Hatten(1979)은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각 특성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제시하고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후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은 증가하였으나 의존적 유형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들로 하여금 자아의 발견, 자기이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탐색을 통해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진로계획을 세우고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 하고 있으며, 진로탐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여중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을 때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보다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교 여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 방법 즉, 연구 대상, 연구 설계, 연구 도구, 연구 절차,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귀포시에 소재한 J중학교 2학년 여학생 대상으로 하였다.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연구의 목적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7명씩을 무선 배치하였다.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표 III-1>와 같다.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계
인원	7	7	14

<표 III-1> 연구대상

#### 2. 연구 설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실험처치 결과를 평가하는 “사전-사후 실험·통제 집단 설계”를 채택했으며 그 모형은 [그림 III-2]과 같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는 달리 프로그램 처치를 하지 않고 추후 프로그램 처치 할 것을 약속하고,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종결 후에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집단	O <sub>1</sub>	X	O <sub>2</sub>
통제 집단	O <sub>3</sub>		O <sub>4</sub>
O <sub>1</sub> O <sub>3</sub> : 사전검사(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O <sub>2</sub> O <sub>4</sub> : 사후검사(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X : 실험처치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그림III-2] 연구 설계			

### 3. 연구도구

#### 1)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김봉환(2010)이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심화연수 중학생용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재구성 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III-2>과 같으며, 전체 프로그램은 매주 1회, 2시간씩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표 III-2> 진로탐색 프로그램 구성 내용

회기	영 역	내 용	성 과
1	Happy I (1) - 자기 탐험 -	1. 진행자 소개 및 전체 프로그램 소개 2. 다섯 손가락으로 자신표현하기 3. 직업흥미 검사를 통해 나의 흥미 자기이해 기초 마련 알아보기	전체 프로그램의 이해 및 자기이해 기초 마련
2	Happy I (2) -가치관 경매시장-	1. 직업가치관경매 게임프로그램 2. 직업가치관 경매 게임하기 3. 직업가치관과 연관된 직업탐색	자신의 직업가치관 탐색 집단원의 성격적 특성 관찰
3	Happy Jobs (1) -직업세계이해-	1. 직업준비의 중요성 2. 직업의 개인적 의미 파악	직업준비의 중요성과 미래직업 세계의

		3. 직업의 다양성 및 직업세계이해	변화이해
4	Happy Jobs (2) -직업카드분류-	1. 직업분류하기 (싫어하는 직업, 어느 편도 아닌 간접적인 직업선택의 직업, 좋아하는 직업) 2. 좋아하는 직업 정하고 RIASEC 유형 찾기	기회 마련해 주어 의사결정을 경험하기
5	Happy Choice (1) -솔로몬의 선택-	1. 희망직업을 정하기 2. 희망직업선택의 기준탐색 3. 최종 희망직업선택	자신의 희망직업을 정리해보고 결정
6	Happy Choice (2)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 보아요!-	1. 나의 꿈에 날개를 달려면? 2. 날자!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서.. 3. 발표 및 소감 나누기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학습

## 2) 진로결정수준 척도

개인의 진로결정수준을 확인하고 진로상담 개입의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Osipow와 동료(1976)들에 의해서 개발된 Career Decision Scale(CDS)이다. Osipow(1987)는 CDS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분석을 통해서 진로미결정 원인을 진단했는데 그 결과 첫째, 구조와 확신의 부족, 둘째, 접근-접근 갈등, 셋째, 선호하는 선택에 대한 지각된 외적 장애물, 넷째, 개인적 갈등 등을 진로미결정 원인을 진단했다. 또한 CDS를 진로선택이나 진로중재와 관련된 효과들을 결정하기 위한 성과의 측정뿐 아니라,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하게 된 동기를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Harmon(1985)은 이러한 CDS를 학교교육에 도입하여 개인의 진로상담 평가도구로 사용했다.

이후 몇몇 연구가들은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에 따른 유형론 입장에서 CDS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성공적인 진로상담을 위해서는 CDS의 사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진로미결정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CDS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인정받는 Career Decision Scale(CDS)을 고향자(1992)가 우리나라에 적절한 문장표현으

로 번안한 한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진학, 직업선택의 확신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진로결정수준검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반응하는 Likert식 척도로서, 1,2번 문항은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개 문항은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 조건을 확인한다. 1,2번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고, 3-18번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미결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3-18 문항을 역 채점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측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α 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내적 일관성 계수로 측정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5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진로결정수준 문항구성은 <표III-3>과 같다.

<표III-3> 진로결정수준의 문항구성

요인	문항번호	Cronbachs'α
진로결정수준	1~18	.85

###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위한 도구로는 국내에서는 이기학과 이학주 (2000)가 Tayior와 Betz(1983)가 제작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r dicision making efficacy )척도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시킨 척도와 이은경(2001)이 다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문과 대조하여 상황에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 혹은 대치하여 타당화 작업을 시도한 척도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 외 남미숙(1998)은 초등학생용 진로자기효능감 검사를 개발하였으며, 이척도는 ‘교육진로’와 ‘과업진로’로 구성되었다. 박명심과 김성희(2006)가 개발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는 ‘진로탐색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수행효능감’을 구

성요소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i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 (CDMSE-SF) 척도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척도를 타당화한 것을 다시 이은경(2001)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문과 대조하여 상황에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 혹은 대치하여 타당화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는 모두 2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5점)’로 반응하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는 4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선택 요인으로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자신 있고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직업정보 요인으로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문제해결 요인으로 진로상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가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다.

넷째, 미래계획 요인으로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 정도를 나타낸다.

본 영구에서 신뢰도를 측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내적 일관성 계수로 측정한 전체 신뢰도는 .86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 검사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은 <표III-4>과 같다.

#### <표III-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a
목표선택	11	1,2,3,6,8,11,14,18,20,22	.84
직업정보	6	7,15,19,21,23,24	.72
문제해결	3	13,17,25	.77
미래계획	5	4,5,10,12,16	.56
전체	25		.86

####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진행은 연구대상의 선정, 사전검사, 실험, 통제집단의 구성,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표 III-5>과 같다.

<표III-5> 연구의 진행절차

실험단계	내용	일정	대상 집단
연구대상 선정	서귀포시 소재 J중학교 2학년 학생 중 프로그램에 희망하는 학 생 모집	2011. 7. 11	서귀포시 소재 J중학교
집단구성	실험집단7명, 통제집단7명 구성	2011. 7. 18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검사	진로결정수준검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	2011. 7. 20	실험, 통제집단
실험처치	진로탐색프로그램	2011. 7. 25 ~ 2011.9.10	실험집단
사후검사	진로결정수준검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	2011.10.15	실험, 통제집단

## 5. 자료처리

본 연구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각 연구단계의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동일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그 후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하였고, 각 영역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점수 차와 표준편차를 제시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적 검증에 따른 검사지 분석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감문 및 관찰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 VII.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 집단 간 동질성 검사, 가설 검증에 따른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는 통제집단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여 연구 가설의 적합성 여부를 알아보고자한다.

### 1. 연구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 1) 진로결정수준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진로결정수준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진로결정수준과 사전검사에 대한 t-검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집단의 종류를 독립변인으로, 진로결정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두 집단 간 평균,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동질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1>와 같다.

<표 IV-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진로결정수준의 동질성 검증

하위요인	실험집단(n=7)		통제집단(n=7)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결정 수준	28.71	3.63	29.85	3.84	.571	.579

<표IV-1>에서와 같이 진로결정수준의 사전 동질성검사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질 집단으로 볼 수 있다( t=.571, p>.05)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사전 동질성 검증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통제 집단의 사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동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 IV-2> 집단 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전 차이 검증

하위요인	실험집단(n=7)		통제집단(n=7)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목표선택	32.00	3.91	31.14	5.39	.340	.740
직업정보	16.14	3.53	18.28	4.99	.927	.372
문제해결	9.57	1.98	10.28	1.21	.635	.537
미래계획	13.85	3.02	14.00	3.82	.077	.940
전체	71.57	9.44	73.71	15.27	.316	.758

<표IV-2>에서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사전 동질성검사는 하위영역인 목표선택( $t=-.340$ ,  $p=.740$ ), 직업정보( $t=.927$ ,  $p=.372$ ), 미래계획( $t=.077$ ,  $p=.940$ ), 문제해결( $t=.635$ ,  $p=.537$ ) 전 영역에서  $p>.05$  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t=.316$ ,  $p>.05$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이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 집단으로 볼 수 있다.

## 2. 가설 검증

---

【가설 1】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진로탐색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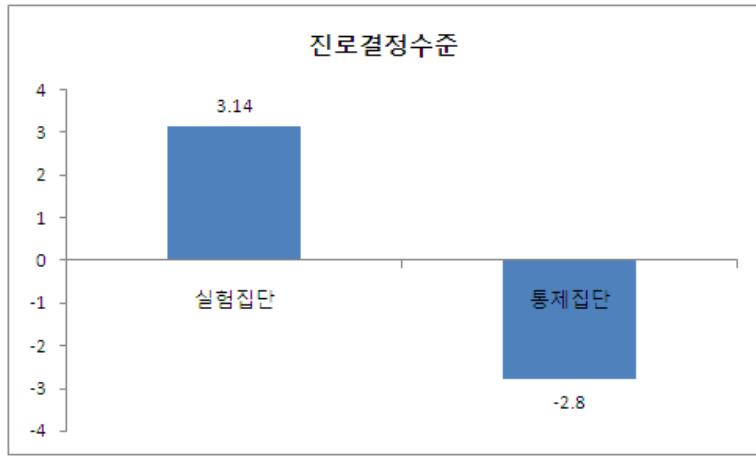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결과는 <표 IV-3>와 같다.

<표 IV-3>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실험·통제집단 효과 검증 (n=7)

요인	실험집단		통제집단		t	p
	사후-사전	표준편차	사후-사전	표준편차		
진로결정수준	3.14	1.95	-2.8	2.56	2.815*	.016

\*\*p<.05

두 집단에서 보이는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를 한 결과 평균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이 수용 되었다. 즉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수준 사후검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결정수준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IV-1]과 같다.



[그림IV-1]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사후-사전 진로결정수준 평균 검증

---

【가 설 2】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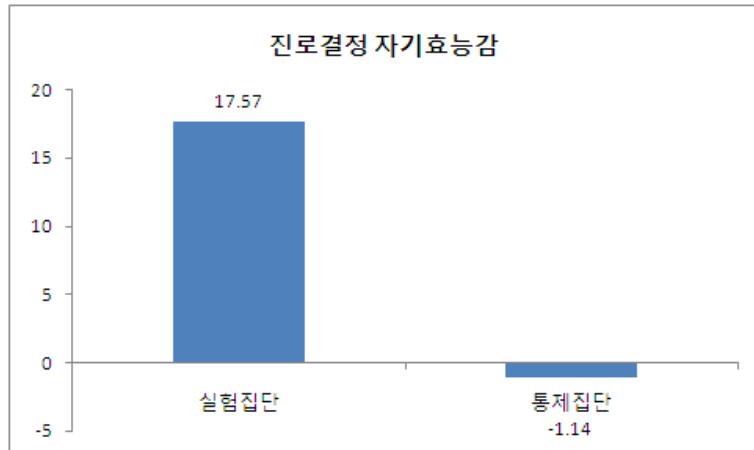
<표 IV-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실험·통제집단 효과 검증 (n=7)

요인	실험집단		통제집단		t	p
	사후-사전	표준편차	사후-사전	표준편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17.57	7.61	-1.14	4.03	3.849**	.002

\* \* p < .01

두 집단에서 보이는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한 결과 평균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가 수용 되었다. 즉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사후검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IV-2]과 같다.



[그림IV-2] 실험·과 통제집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후-사전  
검증

---

【가 설 2-1】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목표선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목표선택의 집단 간 사전, 사후검사의 평균 차와 표준편차는 <표IV-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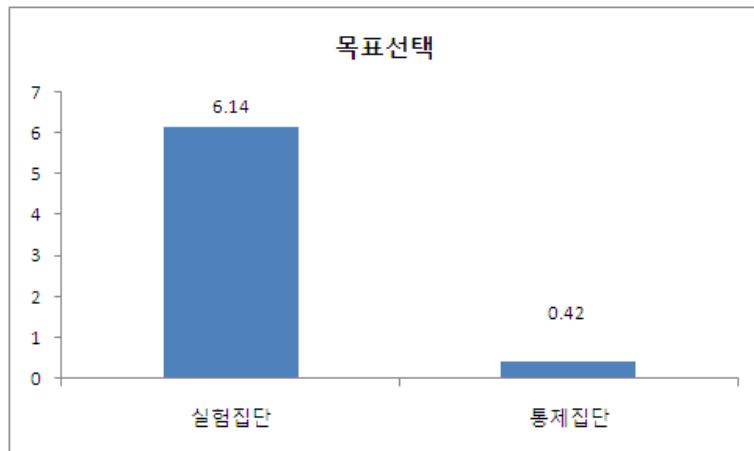
<표 IV-5> 목표선택에 대한 실험·통제집단 사후-사전 효과검증 (n=7)

요인	실험집단		통제집단		t	p
	사후-사전	표준편차	사후-사전	표준편차		
목표선택	6.14	3.38	.42	1.98	2.459**	.002

\*\*p<.01

목표선택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입증되어 수용 되었다. 즉,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목표선택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목표선택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IV-3]과 같다.



[그림IV-3]실험과 통제집단 목표설정 사후-사전 평균점수 검증

---

【가 설 2-2】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직업정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의 집단 간 사전, 사후의 평균 차와 표준편차는 <표IV-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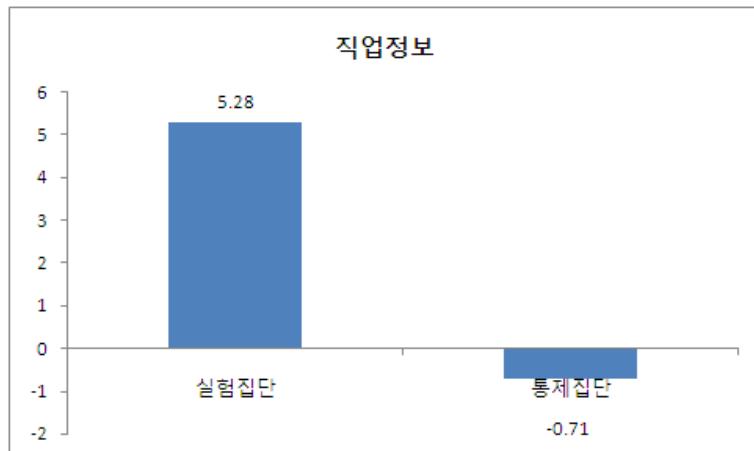
<표 IV-6> 직업정보에 대한 실험 · 통제집단 사후-사전 효과 검증 (n=7)

요 인	실험집단		통제집단		t	p
	사후-사전	표준편차	사후-사전	표준편차		
직업정보	5.28	3.68	-.71	4.75	2.641*	.022

\*p<.05

직업정보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수용 되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직업정보의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IV-4]과 같다.



[그림IV-4] 실험과 통제집단 직업정보 사후-사전 평균 점수  
검증

---

【가 설 2-3】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문제해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문제해결의 집단 간 사전 사후의 평균 차와 표준편차는 <표IV-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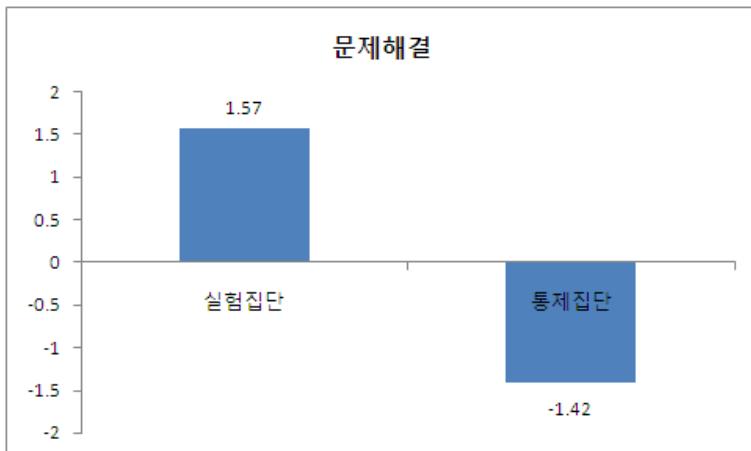
<표 IV-7> 문제해결에 대한 실험·통제집단 사후-사전 효과 검증 (n=7)

요인	실험집단		통제집단		t	p
	사후-사전	표준편차	사후-사전	표준편차		
문제해결	1.57	2.07	-1.42	2.43	2.481*	.029

\*p<.05

문제해결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입증되어 수용 되었다. 즉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인 문제해결이 향상되어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IV-5]과 같다.



[그림IV-5] 실험과 통제집단 문제해결 사후-사전 평균 점수  
검증

---

【가 설 2-4】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미래계획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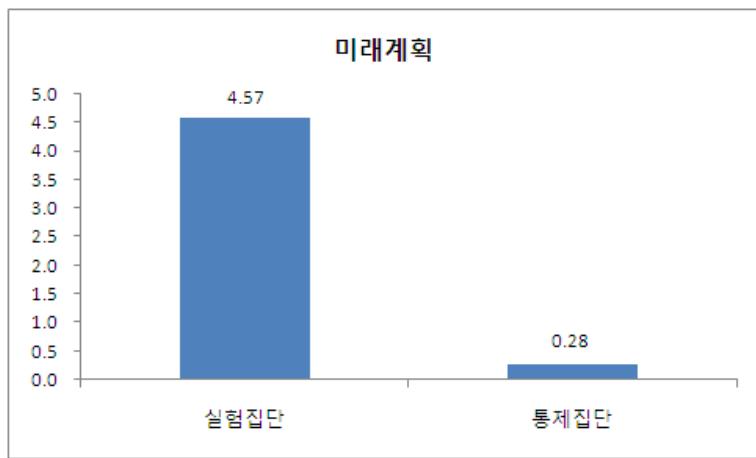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미래계획의 사전 사후의 평균 차와 표준 편차는 <표IV-8>과 같다.

<표 IV-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실험·통제집단 효과 검증 (n=7)

요인	실험집단		통제집단		t	p
	사후-사전	표준편차	사후-사전	표준편차		
미래계획	4.57	2.37	.28	4.19	2.355*	.036

\*p<.05

미래계획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입증되어 수용되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미래계획 점수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IV-6]과 같다.



[그림IV-6] 집단 간 미래계획 사후-사전 평균 점수 검증

### 3. 질적 분석

앞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신뢰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회기별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고 활동지 및 관찰내용을 분석하고, 그 중 세 명의 관찰 내용을 보면 <표 IV-9>와 같다.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 실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느낌을 정리하고 그 회기에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된 점, 앞으로의 다짐 등을 소감문으로 기술하도록 하였고, 보다 밀도 있는 분석을 위하여 연구자의 관찰도 기록 하였다.

<표 IV-9> 회기별 소감문 및 관찰에 의한 분석

회기	회기명	작성자	소감 및 관찰 내용
1	자기탐험	실험자	1. 내가 하고 싶은 직업들이 많이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의 유형을 알게 되어 기쁘다.(강권아) 2. 성격Hong미 검사와 직업Hong미 검사를 통해서 내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 할 수 있을 것 같다.(김혜연) 3. 내가 어떤 것에 Hong미가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재미 있었다.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Hong미를 알아보니까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정예영)
		연구자	성격Hong미와 직업Hong미 검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어떤 것에 Hong미가 있는지 진지한 모습과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으며 자신이 되고 싶은 유형

			을 알게 되어 흡족해 보였다.
2	가치관 경매시장	실험자	<p>1.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면을 중시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어 직업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강권아)</p> <p>2. 내가 사고 싶었던 가치관들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다. 그냥 올인 해서 살 걸 하는 후회도 된다.(김혜영)</p> <p>3. 가치관 경매시장이 가장 재미있었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가치관을 가지려고 힘쓰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정예영)</p>
		연구자	<p>가치관 경매시장 게임을 가장 재미있어 하는 모습이었다. 자신의 가치관을 통찰해 보며 자신이 어떤 것을 중시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 직업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사람마다 자신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 된 것 같다.</p>
3	직업의 세계	실험자	<p>1.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여러 직업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강권아)</p> <p>2. 내가 몰랐던 직업들의 이름이나 나의 성격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직업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김혜영)</p> <p>3. 내가 몰랐던 직업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직업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걸 알게 되어서 기뻤다.(정예영)</p>
		연구자	<p>자신이 몰랐던 직업들의 이름이나 직업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직업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p>
4	직업카드 분류활동	실험자	<p>1. 고등학교는 어느 분야로 갈까? 등 많은 고민들이 텁색활동을 통해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서 좋았다.(강권아)</p> <p>2. 좋아하는 직업과 싫어하는 직업을 분류해 보면서 좋아하는 직업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다.(김혜영)</p> <p>3. 내가 좋아하는 직업과 싫어하는 직업을 분류하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고자 한다.(정예영)</p>
		연구자	<p>직업카드 분류활동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과 싫어하는 직업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 고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p>

5	솔로몬의 선택	실험자	1. 진로가 자꾸 변해 걱정이 되었는데, 최종 직업이 결정되니 기쁘다.(강권아) 2. 나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김혜영) 3. 더 많은 직업을 알게 되니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혼란스럽다.(정예영)
		연구자	솔로몬의 선택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갈등해 오던 진로와 직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직업을 결정 했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직업을 알게 되므로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직업관이 바뀌게 되어 더욱 진지한 모습도 보게 된다.
6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보아요!	실험자	1. 나의 최종목표를 이루기 위해 위의 사항들을 지키며 노력 할 것이다.(강권아) 2. 상담을 받기 전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는데 상담 후, 나의 꿈을 확실히 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김혜영) 3. 집단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에 대해 깨닫고 알게 되어서 기분이 좋다. 자기소명서의 내용들을 잘 지켜나갈 것이다.(정예영)
		연구자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마지막 회기 때는 자신의 꿈을 확실히 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까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 참 좋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회기별로 주요 내용과 관련한 학생의 행동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회기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소개, 다섯 손가락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직업흥미를 통해 나의흥미 알아보기 활동을 통하여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여 자신의 직업흥미와 직업탐색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볼 수 있었다. 다섯 손가락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흥미검사를 실시하여 자신의 성격적 흥미유형과 직업적 흥미 유형의 특징을 이해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2회기는 직업가치관 경매게임을 통해 자신의 직업가치관을 탐색하고, 집단원의

성격적 특성 또한 동시에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직업가치관 경매 게임을 실시하였는데 매우 흥미 있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직업가치관과 연관된 실제적인 직업을 탐색해보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며, 직업선택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는 학생들이 있었다. 활동을 하고 난 후에는 학생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으며, 소감을 통하여 집단원의 성격도 알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하였다.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회기는 직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직업의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의미를 이해하며,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에 목표로 진행되었다.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자립을 유지하게 하고 일을 통해서 자기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히는 학생도 있었고, 직업카드 분류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모르는 직업을 새로 알게 되었고, 다양한 직업세계를 알게 되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보기 좋았다.

4회기는 직업카드 분류활동을 통해 직업에 대한 흥미, 직업선택의 기준을 알아보고 좋아하는 직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 간접적인 직업선택의 기회를 주어 의사결정을 경험하기 하는데 목표로 진행되었다. 직업카드 1인당 1세트, 활동지 등을 사용하여 싫어하는 직업카드를 싫어하는 이유별로 분류하고, 좋아하는 직업카드를 좋아하는 이유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직업카드의 개수를 헤아려 가장 수가 많은 카드의 이유부터 기록하도록 했다.

흥미검사를 통해 자신의 직업적 흥미를 탐색하게 되었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어 직업카드 분류활동 시간이 매우 흥미 있어 보였다. 주의 집중이 매우 잘 되었으며 직업선택의 중요성을 잘 깨닫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5회기는 지금까지 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희망 직업을 정리해 보고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회기이다. 주요 내용은 희망직업 정하고, 희망직업 선택의 기준 탐색 한 다음 최종 희망직업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제까지 흥미검사를 통해 자신의 직업적 흥미를 탐색해 보았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직업카드 분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희망직업을 탐색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다.

일단 희망직업을 잠정적으로 정했지만 직업선택의 기준을 탐색해 보게 한 뒤 최종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희망직업으로 선택하도록 지도 했다.

최종직업이 결정 되어 매우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6회기는 프로그램을 정리하며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 보며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생각해 보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학습하는데 목표를 설정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의 꿈에 날개를 달려면? 날자!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서..., 발표 및 소감 나누기 등 정리의 시간이었다.

집단원 모두 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소명서를 공개적으로 읽게 하고, 자성예언을 3개 골라 외우도록 하였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했으며, 자신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학생도 많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회기의 집단상담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직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 자신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게 되었고 선택한 직업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생각해 보고, 꿈을 이루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는 다짐들을 엿볼 수가 있어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연구결론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중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상승하는지, 즉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중학생의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받고, 진로준비 및 진로선택,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여중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Osipo(1976) 등에 의해 개발된 진로결정척도 (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고향자(1992)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절한 문장표현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r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 (CDMSE-SF)척도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한국어로 번안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척도를 타당화한 것을 다시 이은경(2001)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문과 대조하여 상황에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 혹은 대치하여 타당화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노동부(2001)가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 단계에 있는 15-2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개발한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 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여 먼저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 실험집단에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사후-사전 평균 점수 차를 계산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값과 p값을 산출하여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사후-사전 진로결정 평균 점수가 증가 되어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사후-사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평균점수가 증가되어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모든 영역에서 사후-사전 평균차가 증가되어 여중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2. 결론

본 연구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여중생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 할당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중학생의 발달 단계 및 여중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중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여중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이는 여중생의 진로탐색프로그램을 통해 진로결정의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자신의 내린 결정들 간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있다. 이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자기 자신의 이해, 다양한 직업세계의 탐색 및 직업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직업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리게 하고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려봄으로써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집 단원들 간에 진학과 취업에 대한 고민을 상호교류하고, 서로 지지하는 가운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이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직업의 개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학과와 진로가능성을 이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돋고,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

득함으로써, 진학, 취업의 결림돌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불어넣은 것으로 보여졌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여중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장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고, 진로탐색, 진로결정, 진로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됨으로써, 진로탐색이 절실히 필요한 중학생들이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돋기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3.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 및 관련 연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으므로 지속적인 행동으로 연결하고, 내면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이를 위한 후속연구가 다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음으로 학교교육에서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및 하위요인 중 목표선택, 직업 정보, 미래계획, 문제해결 전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시간적, 운영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서귀포시 지역의 J중학생 중 희망자 14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중학생들에게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중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 대상으로 더욱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덕구(2008).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옥희(2003). 집단상담 진로탐색과 인터넷 진로탐색이 중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태, 배종훈, 강대구(2003).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고윤숙(2005).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태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의 최근 경향.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
- 김남진(2003).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2007).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병석, 정영철(2009).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 김영해, 김태호(1997). 중, 고등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진로상담 방안. 교육연구 제 16호, 73-93.
- 김재담(2003). 진로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1993).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성원사.
- 김충기(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 양서원.
- 김호연(1996).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해수(2002). 진로의사결정 집단상담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재희(2009). 중학생용 진로지도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기숙(2004).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구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2002). 대구 진로교육 프로그램 : 중학생용 진로 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 맹영임(1999). 청소년 진로의식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문승태(2002).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결정. 한국학술정보.
- 박정현(2005). 중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합리적 의사결정 및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필자(2006).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해중(2003). 진로지도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학업동기 및 희망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영자(2004).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 매(2002). 진로의사결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집단 상담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미경(2001). 진로집단 상담이 중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길호(1995). 진로결정 상담이 중학생의 진로결정과 불안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1-74.
- 이은경(201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분택(2003). 진로탐색 집단 상담이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근(1992).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주현(2006). 집단상담을 통한 진로탐색과 인터넷을 통한 자기 주도적 진로

- 탐색이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9).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논문.
- 전미향(2004). 중학생을 위한 진로의사결정훈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진로의사 결정 효능감. 교육학 연구, 38(4), 43-62.
- 이현림(1994). 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 원미사.
- 이현림(2007). 진로상담. 경기 : 양서원.
- 이현정(2005). 중학생용 직업카드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석민(1996).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장은미(1996).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진태성(1999). 진로인식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Baily, L. J. & Stadt, R.(1973). *Carrer education: New approaches to human development*. Bloomington, IL: McKnight Publishing Co.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 Review*, 84, 191-215.
- Betz, N. E., & Hackette, G.(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Corey, G.(1995).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4th edition. New York: Brooks/Cole.
- Crites, J. O(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255-259.

- Crites, J. O.(1978). *Carr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 CTB/McGraw-Hill.
- Gelett, H. B.(1962). Decision mak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counseling. *Journal of Psychology*, 9, 240-245.
- Ginzberg. E.(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rren, V. 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Johnson, N, Johnson, J, & Yates. C.(1979). Effect of the use the vocational exploration group on career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368-370.
- Krumvoltz, J. D.(1979). A 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choice. In A. M. Mitchel, G. B. Jones, & J. D. Krumboltz(Eds). *Social learning t theory and carrer decion making*. Cranston, RI:Carrol Pross.
- Miller, A. W.(1968). Learning the theory and vocational decision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7.
- Osipow, S. H.(1987). *Manual for the Carrer Decision Scaie* Odessa, FL; Psychological Asessment Resources.
- Osipow, S. H, Carney, C. G., Barak, A.(1976). A scale of educational vacational undecide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34.
- Smith G. E.(1981).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 guidance class: An organiz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120-124.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Taylor, K. M. & Popma, J.(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r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rer As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9, 17-31

<Abstract>

**The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and self-efficacy of  
middle-school girls**

**Jeong, Chang-hu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eong-bong**

This study is aimed at clarifying the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program on the increase of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and self-efficacy of middle-school girls, and I have set study questions below for this goal.

Study question 1. How does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affect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of middle-school girls?

Study question 2. How does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affect on the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of middle-school girls?

The process to solve those study questions was made as selecting participants, pretest, composition of test and control group, application of career exploration program, post test, and analysis of data.

---

\* This paper is the master's thesis which was submitted to the council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n Aug. 2012.

Participants were 14 second-graders in J middle school in Seoqwipo-si, randomly distributed evenly to test and control groups.

Measurement for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was conducted by using career decision making Scale : CDS by Osipow et al.(1976) translated by Ko(1992).

Measurement for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was conducted by us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SF) by Taylor&Betz(1983) translated and adjusted for university students by Lee&Lee(2000) and adjusted again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y Lee(2001).

Career exploration program is made based on career assistant program redeveloped fo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program by Ministry of Labor(2001) for youth between 15 and 29 who is now in career exploration and preparation stage, adjusting to the feature of the participants with advice of the thesis director. The program was carried out for an hour a week, 6 sessions in total.

SPSS WIN 18.0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and paired t-test was conducted to test the hypothesis.

The result of the process is shown below.

First, participants who were participated in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showed significantly higher gap between pre and post test than control group i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showing career exploration program increases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of middle-school girls.

Second, participants who were participated in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showed significantly higher gap between pre and post test than control group in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showing career exploration program increases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of middle-school girls.

Third, participants who were participated in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showed significantly higher gap between the average of pre and post test than control group in all of the sub factors such as choosing goals, gathering career information, future planning, showing career exploration program increases the sub

factors of career decision making of middle-school girls.

From the results shown above, we can see that career exploration program have effect on increasing the level and self-efficacy for career decision making of middle-school girls. It seems that the program helps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mselves appropriately, to search various areas of careers, and to get career information, which makes them to be able to rationally decide career by activities understanding majors and relation to career, thus leading them to increase self-confidence of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performance ability. Therefore, it implies that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needs to be actively used to help rational career decision making with consideration of students' ability and talent in school scene.

## <부록1>

## [ 진로 결정수준 검사지 ]

\* 이 검사는 여러분의 진로결정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그 문장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0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다소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1	2	3	4
2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1	2	3	4
3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나는 -이(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나는 다른 어떤 대안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1	2	3	4
4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1	2	3	4
5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1	2	3	4
6	나는 -이(가) 되고 싶지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 결정이 어렵다. 내 자신과 그들의 생각이 일치되는 직업을 발견하고 싶다	1	2	3	4
7	지금까지 나는 진로선택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내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또 당장 진로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1	2	3	4
8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1	2	3	4
9	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1	2	3	4
10	나의 진로선택에 확신을 갖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진로도 나에게 이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1	2	3	4
11	진로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버리고 싶다.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검사라도 받고 싶다	1	2	3	4
12	나의 전공 분야가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13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 결정을 당장 할 수 없다	1	2	3	4
14	나는 나의 관심 분야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흥미를 끄는 분야가 몇 가지 있지만 나의 진로 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1	2	3	4
15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1	2	3	4
16	나는 진로를 결정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확실하지 않다. 내가 선택한 -이(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1	2	3	4
17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1	2	3	4
18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1	2	3	4



<부록 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지 ]

\* 이 검사는 현재 여러분의 진로과제에 대해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찾아 0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1	2	3	4	5
2	여러 가지 전공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3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	2	3	4	5
4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 데 학업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1	2	3	4	5
6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 목록들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7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과과정(교육과정)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다	1	2	3	4	5
8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5
10	향후 10년간의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1	2	3	4	5
11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다	1	2	3	4	5
12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1	2	3	4	5

13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1	2	3	4	5
14	직업 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하여 나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2	3	4	5
15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 볼 수 있다	1	2	3	4	5
16	진로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17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1	2	3	4	5
18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은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어려운지를 구분해 낼 수 있다	1	2	3	4	5
19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	2	3	4	5
20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나는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21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1	2	3	4	5
22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5
23	대학 혹은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1	2	3	4	5
24	취업 면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들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25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 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2	3	4	5

<부록 3>

1회기 - Happy I (1): 자기탐험

모듈명	1회기	시간	50분	내용	Happy I (1)
목표	1. 진행자 소개 및 개략적인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소개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돋고 집단원들에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기대와 참여 동기를 높인다. 2. 집단원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집단의 응집력을 높인다. 3. 자신의 직업흥미와 성격을 연관 지어 본다.				
주요 내용	1. 진행자 소개 및 전체 프로그램 소개 2. 다섯 손가락으로 자신을 표현해보기 3. 직업흥미검사를 통해 나의 흥미 알아보기				
준비 사항	명찰, 활동지, 필기도구, 프로그램 소개 만화 Map, 손가락 모양의 도화지				
활동 내용	1. 진행자 소개 및 전체 프로그램 소개 1) 환영하는 모습으로 진행자 자신을 먼저 소개한다. 2) 만화Map(1회기부터 6회기까지)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에 대해 설명해 준다.  2. 다섯 손가락으로 자신을 표현해보기 1) 각각의 손가락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적도록 한다. 2)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해보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3. 흥미검사를 통해 나의 성격흥미와 직업흥미 알아보기 1) 흥미검사를 실시하여 자신의 성격적 흥미유형과 직업적 흥미 유형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 둘을 매칭 해 본다.				

## 2회기 - Happy I (2): 가치관 경매시장

모듈명	2회기	시간	50분	내용	Happy I (2)
목표	1. 직업가치관 경매게임을 통해 자신의 직업가치관을 탐색해 본다. 2. 집단원의 성격적 특성 또한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주요내용	1. 직업가치관 경매 게임 프로그램 소개 2. 직업가치관 경매 게임하기 3. 직업가치관과 연관된 실제적인 직업을 탐색해본다. 4. 마무리하기				
준비 사항	명찰, 활동지, 가치관 글, 개인당 20개의 S-money, 필기도구				
활동 내용	1. 직업가치관 경매 게임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 소개 - 가치관과 직업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 경매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집단원 모두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가치관 경매 게임 설명하기 - 자신의 직업적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2. 직업가치관 경매 게임하기 1) 갖고 싶은 12가지 직업적 가치관에 대해 순위와 예산금을 정하게 한다. 2) 실제 경매 게임을 통해 구입한 금액을 적는다. 3) 돈을 가장 많이 주고 사려고 한 순위와 실제 게임을 통해 돈을 가장 많이 주고 산 순위의 직업적 가치에 대해 기술해보고 서로 돌아가며 자신의 경매 내용을 발표해보게 한다. 3. 직업가치관과 연관된 실제적인 직업을 탐색해본다. 1) 12항목으로 구성된 직업적 가치는 RIASEC 직업흥미유형이 두 가지씩 들어간 것으로 자신의 성격적 특징도 함께 생각해 본다. 2) RIASEC의 계속적인 반복으로 청소년 아이들이 자신의 직업적 유형과 성격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돋는다. 3) 직업가치관과 실제적인 직업을 탐색해본다. 4. 마무리하기 1) 활동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2)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 본다. 3) 게임을 통해 드러나는 집단원의 성격을 관찰한다.				

### 3회기 - Happy Jobs (1): 직업의 세계 이해

모듈명	3회기	시간	50분	내용	Happy Jobs (1)
목 표	1. 직업 준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 직업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의미를 이해한다. 3.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주요내용	1. 직업준비의 중요성 2. 직업의 개인적 의미 파악 3. 직업의 다양성 및 직업세계의 변화 이해				
준비사항	직업카드 1인당 1세트, 활동지, 필기도구 '직업의 중요성' 설명판, 스티커 1인당 5개씩				
활동내용	<p>1. 프로그램 소개 및 직업준비의 중요성            -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자립을 유지하게 하고 일을 통해서 자기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의 의미 파악</li> <li>2) 직업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 나누기</li> <li>3) 직업과 진로의 의미 종합</li> </ol> <p>2. 다양한 직업세계의 이해            - 직업카드 분류를 통해 아는 직업과 모르는 직업으로 분류해봄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모르는 직업을 새로 알게 하며,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게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카드 소개</li> <li>2) 아는 직업과 모르는 직업 분류</li> <li>3) 카드놀이</li> </ol> <p>3. 직업정보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안내  <a href="http://work.go.kr/careernet.re.kr">work.go.kr/careernet.re.kr</a></p> <p>4. 발표 및 소감 나누기            - 카드를 정리한 후, 좀 더 알게 된 직업을 포함하여 새롭게 알게 된 직업을 친구에게 소개하고 활동 후의 생각과 느낌을 서로 나눈다.</p>				

## 4회기 – Happy Jobs (2): 직업카드 분류활동

모듈명	4회기	시간	50분	내용	Happy Jobs (2)
목 표	1. 직업카드 분류활동을 통해 직업에 대한 흥미, 직업선택의 기준을 알아본다. 2. 좋아하는 직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 간접적인 직업선택의 기회를 주어 의사결정을 경험하게 한다.				
주요내용	1. 싫어하는 직업, 어느 편도 아닌 직업, 좋아하는 직업으로 카드를 분류하여 각각의 이유 탐색하기 2. 좋아하는 직업의 순위를 정하고 RIASEC 유형 찾기 3. 결과 요약 및 정보제공 하기				
준비사항	직업카드 1인당 1세트, 활동지				
활동내용	1. 싫어하는 직업, 어느 편도 아닌 직업, 좋아하는 직업으로 카드분류하기 - 자신의 직업흥미, 직업태도에 대한 정보 수집  2. 싫어하는 직업카드를 싫어하는 이유별로 분류하기 - 싫어하는 이유 5가지 정도 찾게 해서, 직업에 대한 태도를 명료화 시켜서 자신의 직업흥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3. 좋아하는 직업카드를 좋아하는 이유별로 분류하기 - 좋아하는 이유를 5가지 정도 찾게 해서, 좋아하는 이유와 우선순위를 좀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분류된 직업카드의 개수를 헤아려 가장 수가 많은 카드의 이유부터 기록한다.  4. 주제 찾기 - 찾아낸 이유를 비교하여 서로 반대되는 이유가 있는지 확인. 신중한 직업선택을 위해서는 자신의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5. 순위 부여하기 - ‘내가 좋아하는 직업 Best 5’를 선정: 직업선택의 간접경험의 효과, 고려중인 직업을 확장시켜 직업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6. 분류한 직업카드를 RIASEC 유형 6가지로 분류하기 - 좋아하는 직업과 싫어하는 직업유형을 자연스레 확인할 수 있다.  7. 결과 요약 및 정보제공 단계  8. 발표 및 소감 나누기				

## 5회기 - Happy Choice (1): 솔로몬의 선택

모듈명	5회기	시간	50분	내용	Happy Choice (1)
목 표	지금까지 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희망 직업을 정리해보고 결정한다.				
주요 내용	1. 희망직업을 정하기 2. 희망직업 선택의 기준 탐색하기 3. 최종 희망직업 선택하기				
준비 사항	명찰, 활동지, 필기도구, 빨간펜(또는 형광펜)				
활동 내용	<p>1. 희망 직업 탐색</p> <p>1) 흥미검사와 직업카드를 통해 탐색하였던 자신의 직업 목록을 정리해 본다.</p> <p>2) 탐색한 3가지 직업들 중 공통적으로 적힌 직업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p> <p>2. 직업선택의 기준 정하기</p> <p>1) 공통적으로 선택된 직업이 어떠한 경로로 결정된 것인지 알아본다.</p> <p>2) 선택된 직업들과 관련된 자신의 가치를 탐색해 본다.</p> <p>3. 1과 2의 활동을 통해 최종 희망직업을 결정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된 희망직업들 중 직업 선택의 기준 탐색하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최종 희망직업으로 결정한다.</li> </ul>				

## 6회기 - Happy Choice (2):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보아요!

모듈명	6회기	시간	50분	내용	Happy Choice (2)
목표	1.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 보며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운다. 2.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생각해 본다. 3.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학습한다.				
주요 내용	1. 나의 꿈에 날개를 달려면? 2. 날자!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서.. 3. 발표 및 소감 나누기				
준비 사항	명찰, 활동지, 필기도구, 선물, 카세트테이프				
활동 내용	1. 나의 꿈에 날개를 달려면? -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계획한다.  2. 날자!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서 1)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소명서를 작성하여 낭독한다. 2)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내적인 힘을 기르기 위한 방법인 자성예언을 배워본다.  3. 발표 및 소감 나누기 -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학습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본다.				